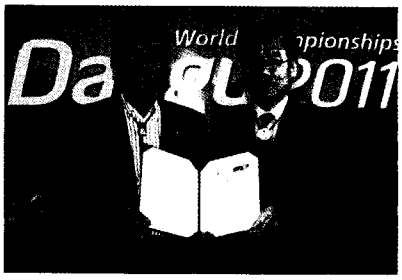
(주)금복주



대구육상선수권 공식후원

(주)금복주(대표이사 김동구)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7월 14일 조직위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식후원사 참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2007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 이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 50억원을 출연키로 약속한 뒤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시 공식후원사 참여를 결정했다. 이로써 '기업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금복주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장학금 1억2200만원 전달

금복주에서 운영하는 (재)금복장학재단은 6월 30일 대구 · 경북지역 187개 고등학교의 307명의 학생들에게 1억2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은 올 상반기 모두 2억8천여만의 장학금을 지역의 꿈나무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재)금복장학재단은, 지난 해에도 대구, 경북 500여명의 중고교생에게 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금복주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참소주 광고모델 이다해 발탁

금복주는 7월 22일 '참소주' 광고모델로 배우 이다해를 새롭게 기용했다.

홍보 · 마케팅 관계자는 "이다해의 상큼 발랄하면서도 순수하고 섹시한 다양한 매력이 참소주의 컨셉과 잘 어울려 광고모델로 선정하게 됐다"며 차별화된 비주얼과 메시지로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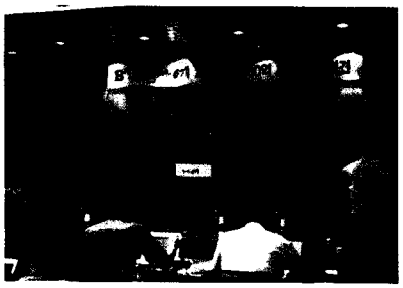
이다해는 9월부터 1년 간 참소주 인쇄와 동영상 광고 등에 출연하게 됐다.

대선주조(주)

'즐거워예', '그리워예' 신제품 출시

대선주조(주)(대표이사 조용학)가 6월 28일 신제품 '즐거워 예'를 공식 출시했다. 즐거워 예는 알코올도수 16.2도의 저도소주로 국내 최초로 나노 버블공법을 채택해 부드러운 술 맛을 실현했으며, 체지방 감소와 미백 효과가 있는 분지형 아미노산(BCAA)과 최고급 식물성 감미료인 토마틴을 국내 최초로 첨가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 8월 8일에는 장례식장 전용소주인 '그리워예'를 출시했다. '그리워 예'는 근조(謹弔)의 의미를 담아 병뚜껑 전체를 검은색으로, 상표 역시 경건하고 은은한 느낌의 검은 색상으로 디자인했으며 알코올 도수 16.2도로 앞서 출시한 저도주 '즐거워 예'와 같다.



사회공헌자금 100억 조성 발표

대선주조가 고객사랑에 보답하는 뜻에서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했다. 조성제 회장은 9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즐거워 예' 판매 한 병당 10원씩을 적립해 모두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00억원 적립은 이날부터 시작하며, 기금 적립 내역도 실시간으로 공개할 방침이며, 각계 각층의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즐거워 예 사회공헌 자문단'을 구성해 적립 금액의 용도와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기장공장 방문

대선주조는 8월 25일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회원들이 대선주조 기장공장에서 '제23회 CTO(최고기술경영자)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은 조용학 대선주조 사장의 안내로 최첨단 설비와 소주 제조공정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직접 생산한 '즐거워예' 시음회를 가졌다.

이날 CTO자격으로 강연한 조 사장은 "기장공장은 세계 최고의 전자동 생산 설비 시설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명품소주 '즐거워예'로 부산시장을 회복해 향토 소주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주)

'쉐어 더 비전' 캠페인 런칭 기념 'W21 스페셜 에디션' 출시

디아지오코리아(주)(대표이사 김종우)는 8월 17일 3040세대가 꿈꿔온 비전을 나누기 위한 '쉐어 더 비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쉐어 더 비전'은 3040 세대에게 비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 비전을 프리미엄 위스키 '윈저'와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마케팅 캠페인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를 기념해 윈저 'W21 스페셜 에디션'도 출시했다. 왕관 모양의 병마개와 정면 방패문양은 '윈저' 브랜드만의 전통을 전달하고 있고, '윈저'를 나타내는 W 로고는 전통적인 로고를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다.

롯데칠성음료(주)

구미 현일고 골프팀에 장학금 전달

롯데칠성음료(주)는 7월 7일 본사 사옥에서 경북 구미 현일고등학교 골프팀의 김낙현코치와 백규정 선수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백규정은 롯데칸타타여자오픈에서 초청선수로 출전해 공동 3위에 올랐던 유망주다.

롯데칠성 이재혁 대표이사는 "백규정 선수와 같은 유망주를 배출한 현일고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다른 선수들도 실력을 키워 국내 골프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롯데주류BG

'청하' 리뉴얼 제품 출시

(주)롯데주류BG(대표이사 이재혁)가 7월 7일 패키지를 시원하면서 젊은 감각에 맞춰 새롭게 단장한 '청하' 리뉴얼 제품을 선보였다.

'청하'의 신선하고 깔끔한 제품 이미지를 강조하고 젊은 소비자 취향에 어울릴 수 있도록 패키지를 리뉴얼했다.

먼저 라벨과 병 뚜껑에 푸른색을 넣고 한글 로고를 확대하여 전체적으로 시원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살렸다. 그리고 한자 로고를 딱딱한 정자체에서 부드러운 이미지의 서체로 바꿔 젊은 감각과 세련미를 더했다.

'처음처럼 비치 페스티벌' 개최

롯데주류BG는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 동안 경포대와 낙산 해수욕장에서 여름 이벤트 '2011 처음처럼 비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이벤트에서 영상, 음향기능 등을 업그레이드한 '처음처럼 멀티카'를 유람선 이미지로 꾸미고, 해변 가요제, 커플게임, 경품행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진행요원들도 선장, 선원 의상을 입는 등 여름 해변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주앙 미사주' 축복식 개최

롯데주류BG는 8월 25일 경산공장에서 마주앙 미사주에 사용될 올해 포도수확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제 34회 '마주앙 미사주' 축복식을 개최했다. '마주앙 미사주' 축복식은 포도 수확기를 맞아 한국 천주교 미사주의 원료로 될 올해 산 포도 수확에 감사하고 향후 '마주앙 미사주' 생산에 대해 축복을 기원하는 미사다.

'마주앙 미사주' 축복식은 신부 및 신도, 포도 계약재배 농가 농민, 롯데주류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천주교 행사지만 지역사회까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전개됐다.

(주)무학

'고객과 부대끼는' 초심마케팅

(주)무학(대표이사 최재호)은 7월 14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사거리에서 최재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초심 마케팅'을 벌였다.

최재호 회장은 이날 김용진 울산본부장 등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삼산동 일원에서 길거리 인사와 환경미화활동 등을 벌인 뒤 저녁에는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며 고객 구두닦이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른바 '고객과 함께 부대끼기'라는 마케팅활동이다.

최재호 회장은 무학의 오늘을 있게 해준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학교육문화재단-경남교육청 장학증서 수여식

무학이 운영하는 무학교육문화재단과 경남교육청이 7월 7일 경남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도내 학생 10명에 대한 장학증서(좋은데이 좋은세상 무학 희망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고영진 경남교육감과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 김인택 경남지방경찰청장, 오세영 KBS창원총국장,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0명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발된 10명은 대학 졸업 때까지 중학생의 경우 월 50만원, 초등학생은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제1회 좋은데이 미술대전 개최

무학은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대학(원)생의 대상으로 제1회 좋은데이 미술대전을 개최한다.

경남 소재 대학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1인 2작품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접수는 1차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이며, 2차 접수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으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데이 홈페이지(http://www.joeunday.c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보배

전북 사랑기금 635만원 익산시 전달

(주)보배(대표이사 윤기노)가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와 함께 보배로 병마개 수거캠페인을 실시, 병마개 1개당 100원을 보상해 적립한 전북사랑기금 635만원을 8월 5일 익산시에 전달했다.

'보배로 애용, 홍보 캠페인'을 통해 소주를 음용하고 그 병마개를 모으면 병마개를 보상해 전북사랑 기금으로 적립,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

윤대표는 "캠페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만큼 오는 15일~11월15일까지 캠페인을 연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보해양조(주)

신임 임효섭 대표이사 선임

보해양조(주)는 9월 2일 목포공장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에 임효섭 전 창해에탄올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신임 임효섭 대표이사는 1951년 전남 무안출생으로 1971년 보해산업에 입사해 보해산업 대표이사 전무, 보해산업 대표이사 사장, 창탄에탄올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

소주병 공동사용으로 녹색성장 동참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효섭)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난해 환경부, 한국용기순환협회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으며,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주 공용병은 지난해 10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국내 소주사가 참여해 시행하고 있으며, 병목 부분이 독특한 형태의 소주병을 사용하는 보해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 제작된 공용화병에 소주를 담아 유통하고 있다.

보해의 자발적 참여에 따라 10개의 소주 제조사 모두 공용화병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선양

조웅래 회장 대전시육상경기연맹 회장 취임

㈜선양(대표이사 박근태)의 조웅래 회장이 유성아드리아호텔 사파이어홀에서 8월 23일 제7대 대전광역시육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회장은 "대전시 육상발전과 육상인들의 화합도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육상경기연맹은 조웅래 회장의 성공 노하우와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육상경기의 건전한 보급발전과 우수한 경기자 양성을 통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시체육 문화발전을 이끌어 갈 전망이다.

전통시장 이웃일촌맺기 협약 체결

선양과 도마큰시장이 8월 22일 '전통시장 이웃일촌 맺기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 충남중소기업청에서 전개하고 있는 1전통시장 1기관 이웃맺어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식은 대전충남 대표소주회사인 선양과 도마큰시장이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의 관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선양 박근태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기관의 상호협력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립 38주년 기념행사

선양이 창립 38주년을 맞아 8월 1일 오동공장에서 뜻 깊은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창립38주년을 기념하며 전 임직원의 단합을 다짐했고, 직원들의 발이 되어줄 신규 영업차량(총 55대)에 대한 무사고와 올해의 기업 영업목표인 '400만 상자' 판매 달성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도 함께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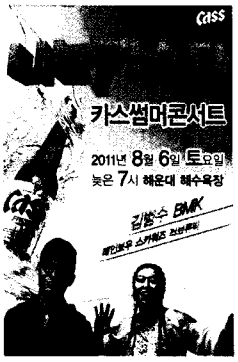
이번 차량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장업무능력 강화는 물론, 경제환경 ·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비자와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영업)활동을 펼쳐 기업의 '제2의 도약'을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비맥주(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오비맥주㈜(대표이사 이호림)는 8월 4일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OB골든라거 사랑의 기부축제' 캠페인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10월까지 3개월간 주요 업소에서 판매된 'OB 골든라거' 병뚜껑 1개당 100원씩 적립, 결식 아동들에게 사랑의 우유기금을 후원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는 수도권에서 OB 골든라거를 판매하는 1천200여개의 음식점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해운대서 '나는 카스다' 콘서트 개최

오비맥주는 8월 6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나는 가수다' 출연진 등과 함께 '나는 카스다' 카스 썸머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김범수', 소울의 국모 'BMK' 외에도 걸그룹 '레인보우', 락그룹 '스카워즈' 등이 출연해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들에게 짜릿한 감동과 즐거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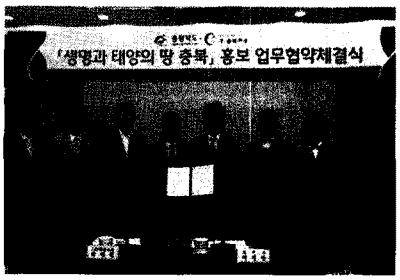
또한 다양한 소비자 체험 이벤트도 실시했으며,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게임과 포토존 등을 마련했다.

'카스 아트 콜라보레이션' 전시회 개최

오비맥주는 9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클럽 엘루이에서 유명 아티스트 7인과 함께 '카스 아트 콜라보레이션' 작품 전시회 겸 기념파티를 열고 '카스'의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아트 창작물들을 선보였다.

이번 '카스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다양한 분야의 유명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 브랜드에 비쥬얼 아트를 접목해 '카스'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문화적 코드로 재해석했다. 오비맥주는 젊은 층과 감성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감성 마케팅을 통해 카스를 끊임없이 진화하는 젊은 브랜드로 키워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충북소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홍보

㈜충북소주(대표이사 이재혁)와 충북도가 7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홍보 업무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충북소주는 자사의 상표와 포스터를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홍보하고, 충북도는 충북소주의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북도는 앞으로 1년간 충북소주의 주력상품인 '시원한 청풍' 소주 5400만병의 보조상표와 포스터 3만부를 활용해 민선 5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을 홍보할 계획이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

충북소주는 8월 26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사랑의 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홀로 지내며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과 노숙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점심을 제공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 프로그램은 충북소주의 후원금(1200만원)으로 2011 하반기 중 6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주)창해에탄올

신임 서상국 대표이사 선임

(주)창해에탄올은 9월 2일 신임 대표이사로 창해에탄올 서상국 부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서상국 대표이사는 1982년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보해산업(주)에 입사하여 창해에탄올 상무이사를 거쳐 부사장등을 지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주)

장 마누엘 스프리에(Jean-Manuel SPRIET)대표이사 선임

페르노리카코리아는 9월 1일자로 장 마누엘 스프리에(49세) 전 페르노리카 영국 사장을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장 마누엘 스프리에 신임 사장은 프랑스 출신으로 1990년 페르노리카 그룹에 입사해 페르노리카홀딩스 재무담당 임원 등을 거친 뒤 2005년부터 페르노리카 영국지사장으로 근무 하였다.

임페리얼19 퀀텀,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페르노리카코리아(주)(대표이사 장 마누엘 스프리에)의 '임페리얼19 퀀텀'이 6월 14일 '2011 미래 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2011 Korea Star Awards)'에서 최고 부문인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임페리얼19 퀀텀'은 일반 부문의 심사 기준인 기술 평가와 실용화 평가 등 주요 항목뿐만 아니라 기타 기술성, 친환경성, 경제성, 시장성, 지속가능성 및 연관산업 파급 효과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페리얼19 퀀텀'은 가을에 개최되는 '아시아 스타 어워드(ASIA STAR AWARDS)'에 한국 대표작의 하나로 출전하게 된다.

'페리에 주에 20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7월 17일 샴페인 '페리에 주에'가 설립 200주년을 맞아 '페리에 주에 20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아티스트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과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이번 에디션은 두 개의 케이스가 한 쌍을 이루는 조각품이다.

20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은 전세계 100세트 한정수량 소개되며 국내에는 오직 3세트만 선보였다.

하이트진로(주)

통합법인 하이트진로 출범

하이트맥주와 진로가 9월 1일 하이트진로(주)(대표이사 이남수)로 새롭게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진로 대표이사를 맡아온 이남수 사장은 관리총괄 사장, 하이트맥주 대표이사였던 김인규 사장은 영업총괄 사장, 양사의 생산을 담당해온 손봉수 사장은 생산총괄 사장으로 관장업무가 조정됐다.

그리고 새롭게 통합 출범을 기념해 9월 5일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경영혁신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통합 CI(Corporate Identity)와 '뜨겁게 살자'는 새 슬로건을 공개했다. 새 CI는 하이트와 진로의 영문 이니셜인 'H'와 'J'가 서로 손을 맞잡듯 포개져 있는 심볼마크를 포함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혁신, 제품혁신, 품질혁신, 조직혁신 등 각 분야별 경영혁신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트 프로야구 스페셜캔 출시

하이트진로(주)(대표이사 이남수)는 프로야구 5개 구단과 함께 디자인한 '하이트 프로야구 스페셜캔'을 8월 17일 출시했다.

이번 스페셜캔 제품을 위해 하이트맥주와 손잡은 프로야구단은 넥센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 SK 와이번스,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이다.

'하이트 프로야구 스페셜캔'은 355ml 캔 패키지 중앙에 각 구단 별 로고를 크게 삽입해 소비자들이 각자 응원하는 구단의 패키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며 구단의 홈 경기장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맥스 스페셜 호프 2011' 한정판 출시

하이트진로는 7월 13일 자사의 100% 보리맥주 브랜드 '맥스(Max)'의 한정판 맥주인 '맥스 스페셜 호프 2011'을 출시했다.

특히 '맥스 스페셜 호프 2011'은 전 세계 호프 생산량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희귀한 뉴질랜드 호프 중에서도 극소량만 수확되는 '라카우' 호프(전 세계 호프 생산량 중 0.001% 차지)를 사용했다.

맥스 스페셜 호프 2011'은 355ml 캔과 1600ml 페트(PET)가 출시돼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스페셜 맥주임에도 기존 맥스 맥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됐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하이트진로가 9월 충남 금산에서 열린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활동에 나섰다.

황종규 진로 충청 · 강원영업본부장과 오양균 대전지점장은 7월 4일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를 방문해 권오룡 위원장과 한찬희 사무총장을 만나 '2011 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진로는 7월부터 생산되는 참이슬 소주병 뒤쪽 보조라벨에 세계인삼엑스포를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전국적인 영업망을 통해 인삼엑스포를 알리기로 했다.

태국 C.V.S SYNDICATE와 업무제휴

하이트진로가 7월말 태국 현지에서 맥주기업인 분럿그룹의 계열사인 C.V.S SYNDICATE와의 협약을 통해 '참이슬 fresh' 및 '참이슬 original', '진로' 제품에 대해 수출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계약을 통해 분럿사의 태국 내 영업,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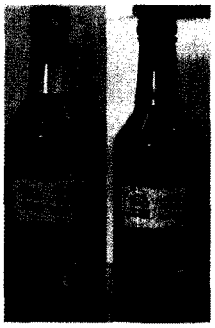
아울러 오는 2013년까지 200만병 판매를 목표로 제품 브랜드인지도 증대 및 음용층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현지 프로모션을 통해 소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산시에 이웃돕기 후원금 전달

하이트진로의 장주호 천안지점장은 7월 12일 아산시 강춘구 교육복지국장을 방문 '참이슬 아산사랑 1억원 후원' 2011년도 2분기 적립후원금 514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4월 20일 협약 이후 아산시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5년간 매분기마다 시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하고 있다.

금년 1분기에는 적립후원금 561만원을 전달하여 차상위계층 자녀 중 · 고등학교 17명에게 교복비 425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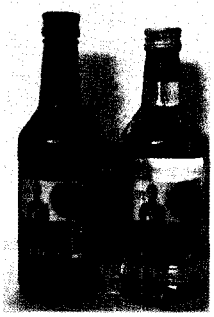
(주)한라산



'출산장려' 공익광고 홍보

(주)한라산(대표이사 현승탁)이 8월 2일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라산 소주 200만병 라벨(보조상표)에 출산장려 공익광고를 부착해 출고키로 했다.

'한라산소주'와 '한라산물 순한소주'에 '아빠와 엄마의 공동육아 저 출산 극복 지름길', '아빠와 엄마의 공동육아 우리가족 행복 지름길, 대한민국 저 출산 극복 지름길' 등의 문구가 들어간 보조 상표를 200만병에 부착, 유통에 들어갔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제주자치도, 한라산이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새주소 사용' 라벨 홍보

한라산이 7월 7일 소주 라벨을 통한 도정 홍보 도우미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라산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와 함께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가 되면 법정주소로 사용될 예정인 새주소 사용을 소주 라벨을 통해 홍보했다.

이번 라벨은 한라산소주와 한라산물 순한소주 각각 100만병에 부착, 유통되고 있다. 보조상표에는 '반갑게 맞이해주세요 대한민국 새주소', '본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구를 게재했다.

서귀포시축협과 업무협약 체결

한라산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은 6월 2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흑한우명품관에서 대외 홍보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라산 소주는 서귀포시축산농협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마케팅과 홍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서귀포시축산농협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라산소주의 판매와 홍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라산소주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조 상표를 활용, 홍보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사)한국주류산업협회

농협중앙회와 '주정용 보리 계약재배' 협약 체결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김남문)와 농협중앙회는 9월 5일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보리산업기반 유지를 위한 보리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보리수매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보리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양 기관은 소주 원료로 사용할 국산보리를 매년 5만여톤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11년산 정부 수매계획물량 4만 8천톤의 100%를 넘는 수준이다. 그동안 소주 원료를 생산하는 주정회사는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정부 양곡정책에 협조하여 국내 농가소득에 기여해 왔다.(본문 원고 참조)

연구본부 신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8월 1일 사단법인 한국주류연구원을 통합하여 협회내에 연구본부를 신설하였다.

연구본부는 본부장 1인 연구원 3인 총4명으로 구성되며 주류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업무를 추진한다.

(Tel 02-3471-8606 Fax 02-3471-8608)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011년 11월 16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역삼동)다이아몬드룸에서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세계적인 알코올 정책 연구기관인 ICAP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파랑새포럼의 '음주폐허 예방의 달'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09년과 2010년에 이은 세 번째이며 매년 주류업계, 보건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년에는 알코올 유해성 감소를 위한 각계의 역할과 상호협력을 주제로하여 WHO 글로벌 알코올 전략과 주류업계 역할, 건전음주문화조정을 위한 주류업계 활동사례 국내음주문화와 유해성 관리 방안에 대한 발표와 해로운 음주예방을 위한 각계의 역할에 대한 패널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문의 : 김영웅 대리 Tel 780-6664)